

멕시코 관광산업의 현황과 전망

1. 멕시코의 관광 산업 개요

□ 멕시코 경제에 중요한 위치 점유

- 멕시코는 풍부한 문화 유산과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세계 관광 경쟁력 순위¹⁾ 중 자연 자원 부문에서 세계 18위, 문화 자원 부문에서 20위를 차지하였으며, 중남미 국가 중에는 코스타리카와 브라질에 이어 3위임.
- 멕시코에서 관광 산업은 주요 외화수입원 중 석유 수입, 해외근로자 본국 송금, 외국인투자(FDI)에 이어 4번째로 크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기준 석유 수입은 500억 달러, 해외근로자 본국 송금액과 FDI는 각각 251억 달러와 219억 달러였으며, 관광산업 수입은 132억 달러를 기록
- 멕시코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관광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ón) 현대통령도 대선 캠페인 중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치안의 획기적인 개선,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을 공약한 바 있음.

1) 세계경제포럼의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2009, 조사대상 133개 국가

□ 풍부한 자연 자원 및 문화 자원 보유

- 멕시코는 태평양과 걸프해, 카리브해가 둘러싸고 있는 관광 요지로서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발달해 있으며²⁾, 동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관광(Eco Tourism) 관련 상품 개발, 국제회의 인프라 투자 강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멕시코 해안은 총 9,330km에 달하며, 이 중 7,338 km는 태평양과 캘리포니아만, 2,805 km는 카리브해와 멕시코만에 맞닿아 있고, 25개 도시에 38개 컨벤션 센터(55만m²에 달하는 이벤트 공간 포함)를 보유하는 등 관광 비즈니스 관련 인프라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음.
- 또한, 중남미 최대의 고대 문명이었던 마야와 아즈텍 문명의 발생지로서 총 26개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라크루즈 카니발, 멕시코 시티 전통 축제 등 문화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세계 각지로부터 관광객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음.

2. 최근 관광산업 현황

□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관광업 위축 불가피

- 멕시코 관광산업은 2009년 들어 예상치 못한 대내외 악재로 크게 위축되고 있음. 2009년 4월 돼지 인플루엔자균 변종인 신종 H1N1 바이러스의 전염 사례가 멕시코에서 처음 발견되어 전세계적으로 확산³⁾되었고, 멕시코는 현재 전염병 확산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임.⁴⁾

2) 주요 관광지는 Cancún, Mexico City, Los Cabos, Puerto Vallarta, Guadalajara, Cozumel, Mazatlán, Monterrey, Quintana Roo 등으로 일부 유적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음.

3) 유럽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09년 8월 14일 현재 세계적으로 226,065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004명(0.89%)이 사망함. 지역별로 분포율을 살펴보면 확진사례의 58%(총사망사례의 87%)가 미주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유럽이 18%(사망 3.6%), 태평양 서부 지역이 16%(사망 3%), 남동아시아 6.4%(사망 5.7%)로 그 뒤를 이음.

4) 멕시코는 확진 환자 18,698명 중 163명이 사망하여 미국(46,752명 중 477명), 아르헨티나(6,768명 중 404명), 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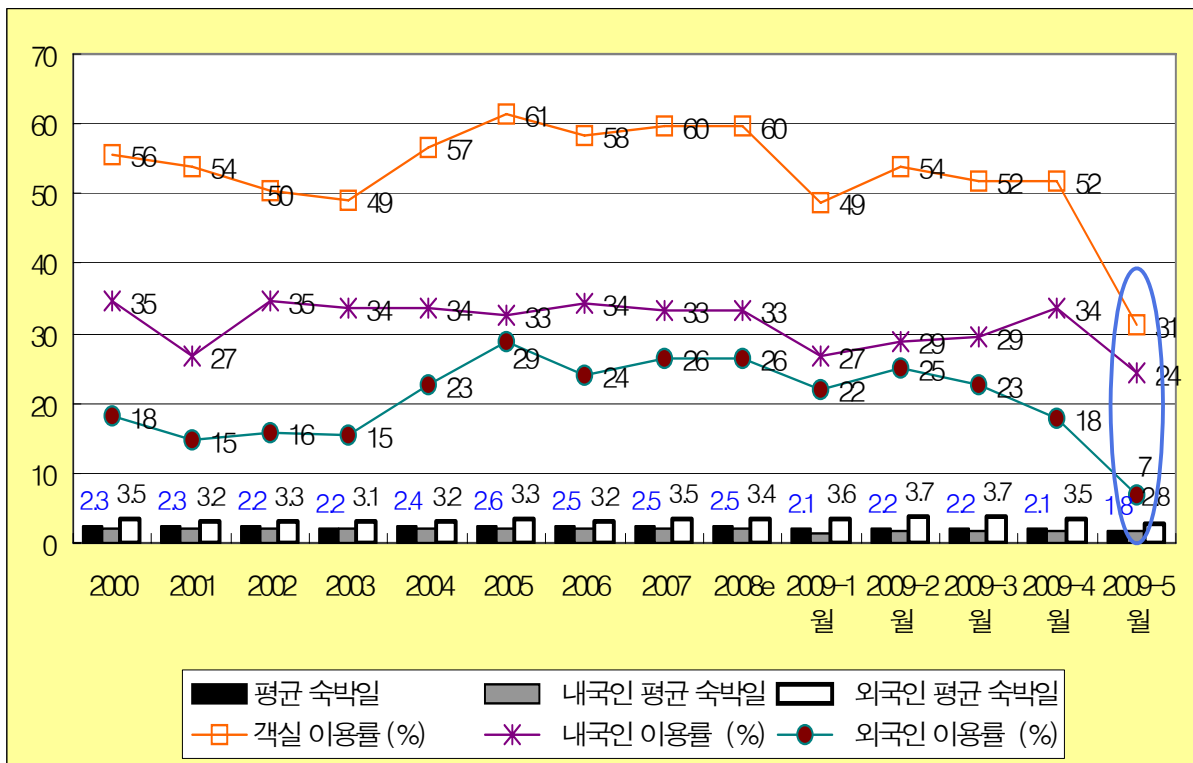
○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 멕시코시티 등 멕시코 주요 도시들의 산업 활동이 마비되었으며, 여러 국가에서 멕시코행 항공 운항 취소⁵⁾가 잇따르는 등 산업생산과 관광부문이 큰 타격을 입고 있음.

- 2000년 이후 객실 이용률(occupancy rate)은 연평균 55%대를 꾸준히 유지해 왔으나, 4월 전염병 발생 발표 이후에는 10~20%대로 급락함.

* Riviera Maya의 객실 이용률⁶⁾ 추이 : 79.21%(4월이전) → 16.16%(5월 2주)

* Cancun의 객실 이용률 추이 : 69.22%(4월이전) → 21.37%(5월 1주)

<그림 1> 연간 숙박시설 객실 이용률 및 평균 숙박일



자료 : 멕시코 관광통계정보(Data Tur)

질(3,642명 중 338명)에 이어 전염병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임.

5) 쿠바, 에콰도르, 아르헨티나는 지난 4월 멕시코 운항을 잠정 중단하였고, 중국은 7월 상해의 멕시코발 항공 운항을 전면 금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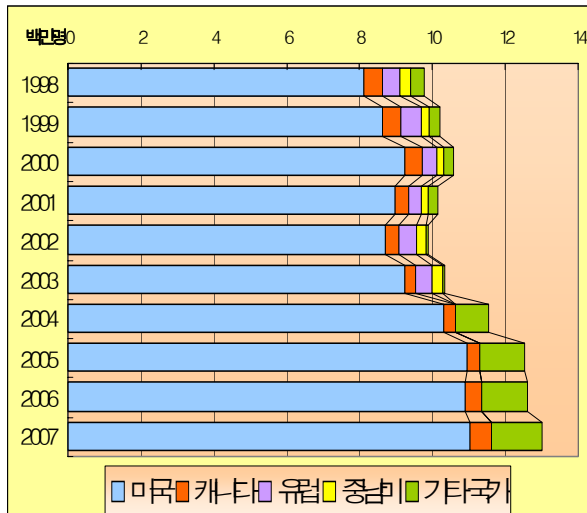
6) 멕시코 일간지 El Periódico de Mexico의 2009.7.6자 기사

□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해 관광객 유입 및 관광수입 급감

○ 멕시코는 미국과 5,000km에 달하는 국경이 맞닿아 있는 지리적인 이점과 비교적 저렴한 물가로 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었으며,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엄격한 비자 발급 규정이 다소 완화되면서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 2007년 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관광객 규모는 전체의 85% 차지

<그림 2> 국별 관광객 규모 (백만 명)



자료 : 멕시코 관광부 (SECTUR)

<표 1> 관광객 종류별 지출 규모 (억 달러)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5월)
일반 관광객	77.8	85.0	89.5	97.1	101.1	41.1
국경지역 관광객	5.9	6.4	6.0	6.8	7.0	2.5
당일 여행자	24.1	26.5	26.1	27.5	24.7	8.8
합 계	107.9	118.0	121.7	128.5	132.8	52.4

자료 : 멕시코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소득 감소 등으로 미국으로부터의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 발생 소식이 공표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중남미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임.

- 2007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인 관광객 수는 2009년 5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2.3백만 명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관광수입도 전년 대비 20% 이상 축소되었음.

* 미국 관광객 규모(비중, %) : 2007년 11백만명(85%) → 2008년 8.6백만 명 (65%) → 2009년 5월 현재 2.3백만 명(63%)

□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는 대폭 확대

○ 관광업에 대한 투자는 호텔 등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민간 투자 자금이 활발히 유입되고 있으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34%의 상승세를 기록함.

- 투자금의 상당부분이 주요 해안지역의 인프라 건설(특히 토목건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본의 45%이상이 외국 자본임.

* 2008년 관광분야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는 국내자본 52%, 외국자본 48%이며, 국별 외국인투자 비율은 미국(46.6%), 스페인(42.9%), 기타(10.5%)임.

- 2008년 민간투자 경향을 보면, 전년대비 총 사업건수는 감소하였지만 관광단지 조성 및 리조트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으로 총 투자금액은 증가한 것이 특징임.

<표 2> 관광부문 민간투자 추이

금액단위 : 백만 달러

사업종류	2007		2008		변동률	
	사업건수	사업금액	사업건수	사업금액	사업건수	사업금액
관광자원개발 및 메가개발 사업	15	794.14	25	1,632.96	66.7%	105.6%
관광레저 사업	64	60.95	58	173.46	-9.4%	184.6%
숙박시설(호텔제외) 건설/리모델링	147	1,361.68	102	1,521.11	-30.6%	11.7%
호텔 건설/리모델링	114	1,215.22	116	1,250.33	1.8%	2.9%
교통시설 건설사업	6	31.96	9	63.31	50.0%	98.1%
합 계	346	3,463.95	310	4,641.17	-10.4%	34.0%

자료 : 멕시코 관광부, 관광부문 민간투자연보(2008)

7) 카리브해의 유명 휴양지인 Cancún이 위치한 Quintana Roo州에 민간 투자금의 34%가 유입되었고, 태평양 해안가에는 Plaza Nayarit을 중심으로 Nayarit州에 17%가 투자됨.

3. 향후 전망

□ 당분간 관광산업 침체 양상은 지속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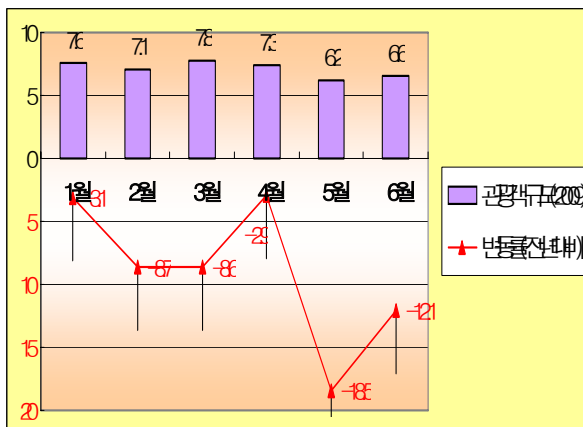
- 멕시코 관광부의 통계에 의하면,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소식 후 급감했던 관광객 유입 규모 및 관광 수입은 6월 이후 소폭 회복세(전월대비 각각 6%, 48% 증가)로 반전하였으나, 여전히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5월 중 해외 관광객 규모와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18.5%, -49%, 6월에는 각각 -12.1%, -29%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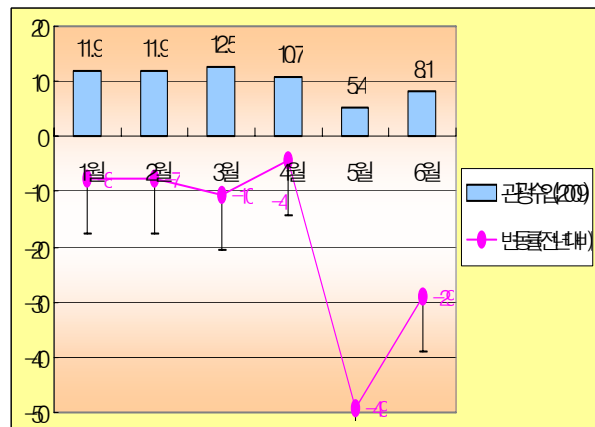
- 게다가 금년 6월까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신종 인플루엔자가 동남아,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재차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의 회복 조짐이 아직 관광산업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금년은 멕시코 관광산업의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임.

- 멕시코 재무부는 2009년 인플루엔자로 인해 GDP의 약 4%(30억 달러 이상)가 감소하고, 전체 일자리 수가 4%⁸⁾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그림 3> 2009년 관광객 규모 (백만 명)



<그림 4> 2009년 관광수입 규모 (억 달러)



자료 : 멕시코 관광부 산업활동 보고서(Informe de Actividad Turística)

8) 관광산업은 멕시코 전체 노동자의 약 6.7%(2006년)를 고용하고 있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나, 실업자 및 비경제인구 등의 비공식 경제 활동이 주로 노상판매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런 활동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근간 산업임.

□ 관광산업 잠재력은 풍부, 2010년 이후 성장세 회복 전망

-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 의지, 민간투자 활발 등을 근거로 멕시코 관광산업에 대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 내년 하반기부터는 관광산업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멕시코 정부도 국가개발계획상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동안 20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⁹⁾하여 신규 관광지를 육성¹⁰⁾할 계획이며, 깔데론 대통령도 마약 카르텔 근절을 통한 치안 강화, 내륙 지역 관광 자원 개발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멕시코 최대 호텔 그룹인 Grupo Posadas¹¹⁾는 8개 호텔을 신설하기 위해 LaSalle Investment Management社와 6천만 달러 투자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등 2010년까지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번 겨울의 인플루엔자의 확산 및 변종 발생 여부, 미국 경제의 추가 회복 등이 멕시코 관광산업의 조기 회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며, 관광산업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자원 및 인프라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과거 문제로 지적되었던 신종 인플루엔자 검역을 확대하는 등 해외 관광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됨.

전문연구원 박현희(☎ 02-3779-6676)
E-mail: sarapark@koreaexim.go.kr

9) 2008년 말 현재 총 81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져, 민간자금 유치 계획의 40.5%를 달성함.

10) 2009.7월 정부는 Quintana Roo州내 대규모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13.6만 개의 객실수를 신규 보급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까지 6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새로운 계획 도시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

11) 중남미 주요 50개 도시 및 휴양지에 7개 호텔 브랜드명으로 총 107개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멕시코 자본 소유 최대 호텔 그룹임.